

정부는 지난 2월의 국내原油도입단가가 배럴당 16달러15센트로 잠정 집계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석유수입시 징수하는 석유사업기금 징수액을 배럴당 6달러39센트에서 4달러1센트로 2달러38센트 인하하여 지난 4월 3일 통관분부터 적용기로 했다.

현행 수입 LPG(액화석유가스)에 부과되는 톤당 1백66달러의 기금징수액은 변함이 없다.

石油事業基金 징수액 인하

- 原油 6.39\$/B → 4.01\$/B
- LPG 166\$/T로 불변

정부는 지난 85년말 이후의 지속적인 국제原油가격의 하락에 따라 86년 2월 20일과 3월 29일 두차례에 걸쳐 국내油價를 22.8%(공장도가격 기준) 인하했으며, 그 이후의 국제원유가격 하락분은 석유사업기금과 原油관세로 흡수, 향후의 油價반등에 대비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도입되는 원유가격은 지난 86년 8월에 배럴당 8달러84센트까지 하락, 기금징수액이 배럴당 15달러56센트까지 달한 적도 있으나, 86년 9월 이후 국제 원유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지난 2월의 도입가격은 배럴당 16~17달러선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86년 하반기 이후 국제原油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지난 85년말 이후 산유국간의 경쟁적인 물량공급증대에 따른 原油가격의 속락사태에 대해 당사국간의 반성과 의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지난해 12월 20일 폐막된 제80차 OPEC(석유수출국기구)총회에서의 생산상한선 감축(중전 1천7백만B/D → 1천5백80만B/D)과 배럴당 18달러 固定油價制 실시합의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5일에 1월 국내도입단가인 배럴당 14달러62센트를 기준으로 기금징수액을 이전의 배럴당 8달러69센트에서 6달러39센트로 축소조정 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2월 原油도입단가인 배럴당 16달러

15센트를 기준으로 다시 축소조정 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예견되는 국제原油가격의 상승은 현행과 같이, 계속 석유사업기금의 감액조정으로 대처, 당분간은 국내 油價수준을 현수준에서 유지시킬 방침이다.

석유사업기금 징수액 조정내역

1. 조정원칙

原油도입단가 反騰에 따른 油價인상요인을 全額 基金 減액 調整으로 흡수

2. 조정기준

- 原油도입단가: 16.15\$/B (2月内需도입실적FOB)
- 환율: 855.80원/\$ (87. 3. 19현재 환율)
- 관세: 不變(24.5%)
- 부대비용: 原油단가 反騰에 따른 부대비 諸稅等 상승분 반영
- 금융비: 原油가격 反騰에 따른 금융비 상승 반영
- 原油가격 반등에 따른 87. 2. 20~3. 19間 假精算 손실 반영
- 국제 나프타가격 連動손익 반영

3. 조정요인

	변화폭	基金調整소요
原油가격 상승	+1.53\$/B(14.62→16.15)	△1.65\$/B
附帶費 상승 등	+0.40\$/B(6.59→6.99)	△0.43\$/B
換率 하락	-4.3원/\$ (860.1→855.8)	+0.08\$/B
금융비 상승	+37원/B(353→390)	△0.05\$/B
87. 2. 20~3. 19 精算損 반영	+261원/B(△473億)	△0.33\$/B
余裕財源	(6.39→4.01)	△2.38\$/B

4. 조치

87. 4. 3.부터 石油事業基金을 2.38\$/B 감액(原油 6.39→4.01\$/B)

5. 국제原油가격 추이

	85末	86. 2末	3末	8末	12末	87. 1末	2末	3. 18
WTI	26.35	13.95	10.45	15.83	18.15	18.80	16.60	18.70
브렌트	26.40	17.50	10.30	14.43	17.98	18.40	16.20	18.30
아라비아라이트	27.78	27.25	15.60	13.25	16.10	18.20	15.49	18.07
두바이	26.15	14.65	10.50	12.78	17.15	17.15	16.50	17.00
국내 평균도입가격	26.65	23.45	(18.34)	(8.84)	(13.18)	(14.62)	(16.15)	()
		(22.89)						

〈註〉()는 국내 油價반영 FOB